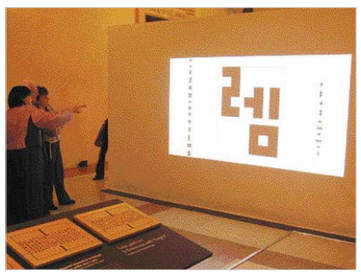
23일 윤곽을 드러낸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이하 디자인비엔날레)의 특징은 음식, 집 등 문화 원형을 젊은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외수, 안은미, 황지우, 손봉채씨 등이 자신의 장르인 소설, 무용, 시, 미술이 아닌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것도 색다른 볼거리이다.

또 전시와 산업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큐레이팅 시스템' 도입과 피터 슈라이어, 장 폴 고티에 등 유명 디자이너, 노키아, 파나소닉 등 해외 유명 기업의 참여도 눈에 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옷, 맛, 집, 글, 소리 등 5개 주제전과 살림, 살핌, 어울림 등 3개의 프로젝트로 펼쳐진다.

▲옷 섹션에 출품되는 이세이 미야케의 대표작



▲한재준 작 '특별한 글자 한글'

윤곽 드러낸 2009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옷·맛·집·글·소리의 美를 만난다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더 큰 나위는 없다

5개 주제에 '살림·살핌·어울림'의 3개 프로젝트

남도의 한옥 등 젊은 디자이너들 시각으로 재해석

▲옷(큐레이터 배영진)섹션=한국의 김택상, 정종미,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 프랑스의 장 폴 고티에 등 41명의 디자이너와 리바이스 진 등 패션기업 4곳이 참여한다. 1990년대 초반 주름 의상 '플리츠 플리즈'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는 일본의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작품을 소개한다. '바지 위에 속옷 입기' 등 이색 디자인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장 폴 고티에는 영국의 펑크룩에 프랑스 전통 의상을 결합시킨 작품을 선보인다.

▲맛(큐레이터 오정미)=음식과 식기에 담긴 디자인적 관점을 살펴보는 섹션이다. 영국의 천재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굿푸드 디자인), 한국의 나유미, 오정자, 설치미술 작가 손봉채(이상 의례음식) 등 51명의 작가와 네덜란드의 로얄 코펜하겐, 이탈리아의 에스프리사 등의 세계적 기업 37곳이 참여한다. 대나무숲 연작과 움직이는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손봉채씨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비빔밥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을 전시한다.

▲집(큐레이터 조병수)=남도의 한옥을 비롯해 집에 담긴 디자인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섹션이다. 한옥과 서구 건축디자인, 부엌과 주방, 가구 등 세계 각 국의 주거생활 디자인을 비교, 전시한다.

독일출신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현 기아차 디자인총괄 부사장), 하버드대 건축대학장인 모이센 모스타파비 등이 작가로 참여, 담양 소쇄원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이외수, 황지우(전 한국예술종합대학 총장), 손진책(극단 미추 대표), 현대무용가 안은미, 박범훈(중앙대 총장), 황인용 아나운서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해 '휴식'을 주제로 4㎡ 크기의 휴식공간을 직접 디자인한다.

▲글(큐레이터 한재준)=한재준씨 등 77명의 작가와 30곳의 기업이 참여해 한글과 각국 언어의 다양한 서체 디자인, 포스터 등을 비교·전시한다. 세계문화유산인 훈민정음 섹션에서는 한글창제 원리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참여 기업들이 작품을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 선보인다.

▲소리(큐레이터 김영일)=46명의 작가와 84곳의 기업이 참여해 소리 산업 속 디자인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한다. '사운드 오브 광주'를 주제로 남도의 다양한 현장음을 녹음한 뒤 비엔날레 전시장에 SACD(super audio compact disc) 스튜디오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소리를 들려준다. SACD는 CD의 재생한계를 넘어서 연주회장의 공기까지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다는 평을 받는 신기술이다.

▲3대 프로젝트=이 밖에 광주지역 디자인 기업인 인스나인 박유복 소장이 선보이는 '어울림'은 광주의 옛도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박 소장은 '골목길과 장바닥 연결하기'를 주제로 양림동 이장우 가옥 등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또 지역 디자이너와 지역 산업체의 연계를 통해 생활 소품 50여 종을 개발하고,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 골목 탐방도 떠난다.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반짝반짝 빛나는 노래방'은 현대 설치미술가인 최정화씨가 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 첨단 LED 조명으로 꾸민 노래방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광주천변 노점상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파라솔 300여개를 빌려와 관람객들의 쉼터도 마련했다.

은병수 총감독은 "옷이나 음식 등 실생활에서 친숙한 대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디자인과 삶의 관계를 풀어보는 전시다"면서 "새로운 발상과 다양한 실험을 선보이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많아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구 양림동의 이장우 고택

고려청자 보물선 경복궁 가다

28일~ 9월6일 특별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는 고려청자 보물선 뱃길 재현사업을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9월6일까지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고려청자보물선' 특별전을 개최한다.

강진군과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전시는 태안 대섬 고려청자 운반선 발굴 성과를 종합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청자 운반선에서 발굴한 청자와 목간을 비롯해 740점이 전시된다.

900여년 전 고려인들이 쓴 청자 운송 화물표의 기록을 따라 탐진(耽津·강진의 옛 이름)에서 태안 안흥량 바닷길을 지나 개경으로 운송된 강진 청자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1부주제는 '태안 바다'.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 운반선과 목간, 청자 사자모양향로, 두꺼비모양벼루, 참외모양주전자, 발우(밥그릇) 등 6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2부 '강진'에서는 고려시대 최고급 청자를 만들던 강진의 청자를 볼 수 있다. 주요 전시품은 청자기와, 연꽃모양향로, 사자장식향로, 참외모양주전자 등이다.

3부는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체험공간으로 목간 쓰기, 청자무늬 그리기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02-3701-750

태안 대섬 해저에서 출토된 청자사자모양향로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백자·청자에 담은 남도의 화사한 빛

김혜옥· 백순자 서울전

도예가 김혜옥, 백순자씨가 오는 28일까지 서울시 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 LIGHT'에서 남도의 화사한 빛깔을 담은 백자와 청자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자연을 담고 나누다'를 주제로 맑고 투명한 표면에 푸른색의 꽃을 띄운 백자를 선보인다. 기존의 도자기 양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기법으로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어냈고, 다기와 액자 타일 등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작품도 함께 내놨다.

김혜옥 작 '담다'

또 백씨는 '색 담기'를 주제로 순박한 민화가 새겨진 청자를 출품했다. 청자의 화려한 빛과 민화의 다양한 색감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문의 062-510-0134.

/오광록기자 kroh@

담양서 한·중 아동문학 세미나

25~26일 청소년수련관

한국아동문학회(회장 엄기원)는 오는 25~26일 담양 청소년수련관에서 '제4회 한·중 아동문학 세미나'를 갖고 한·중 아동문학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만석씨 등 중국 연변 조선족 아동문학회 회원과 작가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박성배, 윤영훈씨 중국의 김현순(중국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장)씨가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와 '한국아동문학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중국조선족 아동문학활동 현황'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한·중 옹달샘 아동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수상자로는 동시 부문에 강성남(담양문학회장)씨, 동화 부문에 김숙자씨가 선정됐다. 문의 061-380-316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